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월 26일까지 '2019 커피사회'



커피의 향기로 시대의 문화를 맛보다

Spring Coffee Club

'커피의 시대'
커피 문화사와 사회적 관계

'유스클럽'
커피에 대한 동시대성 탐구

'근대의 맛'
지역 대표 커피 선착순 제공

'커피의 시인'이자 '고독의 시인' 김현승은 힐스브로스 커피를 좋아했다고 한다. 힐스브로스 커피는 예술가들의 영감을 깨웠다. 모단보이 코오-피(Modern Coffee)는 한국의 근대(1890-1930년대)의 감성을 담은 더치커피다. 100년 커피애호가들이 즐겼던 '힐스브로스 원두'를 100% 사용해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속이 느껴지는 산미가 매력적이다.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목동이 염소가 어떤 열매를 먹고 오랫동안 흥분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커피가 전해졌다고 한다. 이후 커피는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무역로를 따라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문헌에 의하면 고종이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마셨다고 한다. 이후 커피는 오늘날 많은 이

들의 기호식품이 되기까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커피의 근대맛과 아울러 음악다방의 음악 DJ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5월 26일까지 여는 '2019 특별 순회전 '커피사회''가 바로 그것.

전시 공간(문화창조원 복합3, 4관)에 들어서면 먼저 '신청곡' 공간을 만나게 된다.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가요와 팝송이 무작위로 흐르고, 중간중간 DJ의 멘트가 더해진다. 커피 향 가득한 음악다방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회귀한 듯한 착각을 준다. 관람객들은 잠시나마 커피에 담긴 아련한 향수와 옛 시절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과거의 명DJ들과 젊은 세대 음악 전문가들이 애창곡을 현장에서 디제이하는 디제이 쇼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커피의 시대', '유스클럽', '근대의 맛'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커피의 시대'는 커피의 문화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제비다방, 낙랑팔러, 돌체다방 등 커피가 도입되면서 활성화됐던 근대 시기의 다방들과 이후 6·70년대 청년문화의 중심이 됐던 다방을 중심으로 커피와 사회, 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본다. 문학, 미술, 철학 등 문화예술의 교류에 커피가 미친 영향과 문화와의



'근대의 맛'은 대나무 정원으로 난 창을 바라보며 관람객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1930년대 양림동 근대 모습을 보여주는 '양림살롱'.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ACC 유스클럽'은 '커피사회' 내부에 위치한 전시 속의 전시다. 주로 계보적인 문화 탐구를 구성되는 섹션들과 달리 'ACC 유스 클럽'은 수평적이고 혼종적인 이미지를 특유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나열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커피를 마시지"라는 제안으로 다가온다. 이 제안에 덧붙여, 커피의 사회문화사적 의미는 종류와 향 만큼이나 매우 복잡적이다.

가장 흥미를 끄는 곳은 근대를 주제로 새롭게 만든 커피를 선보이는 '근대의 맛'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육각커피, 컵커피, 1930양림살롱 등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

를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지역의 커피를 즐기며 대나무 정원으로 난 창을 마주하고 앉아, 전시공간과 카페를 넘나드는 이색적인 경험을 한다. '근대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일정은 컵커피(16-21일), 1930양림살롱(23-28일), 마루(30-5월5일), 카페304(5월7일-5월12일), 로이스커피(5월14일-5월19일) 등이다. 특히 '근대의 맛'은 전시 동안 매 시간 선착순 50명에게 커피를 제공한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전시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주의 참여업체들이 제공한다.

'커피사회 아카이브'에서는 커피의 기원과 전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초기부

터 오늘에 이르는 커피 도구 세트는 물론 커피를 끓이는 방법과 기구가 변화해 온 모습을 600여개의 삽화로 가능하다. 가차길 레일을 모티브로 구성된 공간에서 커피 문화의 형성과 발전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다. 수백 년에 걸친 커피의 역사가 길게 늘어진 구조물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색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한편 이번 '커피사회'는 지난 겨울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기획하고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 전시의 순회로 진행된다. 커피에 담긴 향기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기회다. 무료 관람. 문의 062-601-4028. /박성현 기자 skypark@

일상에 담긴 '혼족문화' ... '1인분 인생-5 Aloner들의 이야기'

산수미술관, 5월3일까지 청년작가 기획전



정윤하 작
'혼밥이 편하지 않아'

2017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8.6%에 달한다.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이들도 그만큼 늘어났다.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자리잡은 '혼족문화'를 바라보는 젊은 예술가들의 시선은 어떨까.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이 기획한 청년작가 기획전 '1인분 인생-5 Aloner들의 이야기'전(5월3일까지)은 현재 혼자 살거나 혼자 사는 삶을 꿈꾸는 작가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로 라이프를 그들의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 작가 4명과 재학생 1명이 참여했고 젊은 큐레이터 김혜민씨가 참여해 자신의 전시 기획 아이디어를 펼쳐보였다.

김재영 작가는 작가는 전단지로 만든 음식 오브제와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 매체를 통해 유년 시절에 겪은 의사소통의 부재와 현대인들이 겪는 의사

소통의 부재에 대한 단상을 다뤘다. 정윤하 작가는 식탁에 놓인 점토로 만든 음식 오브제들과 캔버스에 실로 새겨진 인물들이 혼자 음식 먹는 모습을 배치해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대변해준다.

박재영 작가는 자신의 방 일부를 전시장으로 옮겨왔다. 실제 작가가 여행을 갈 때 쓰던 물품들과 관객 참여 공간을 통해 그는 '혼행'으로 얻는 삶의 가치를 전한다. 오성현 작가는 전시장에 텐트를 설치했다. 각각의 텐트는 현대인들의 대피소로 그 안에서는 작은 모형으로 표현된 현대인들이 혼술, 코인노래방, 독서 등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선대에 재학중인 윤상하 작가는 지친 일상에서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휴식방법 조각감을 회화 시리즈로 풀어냈다. 문의 062-234-9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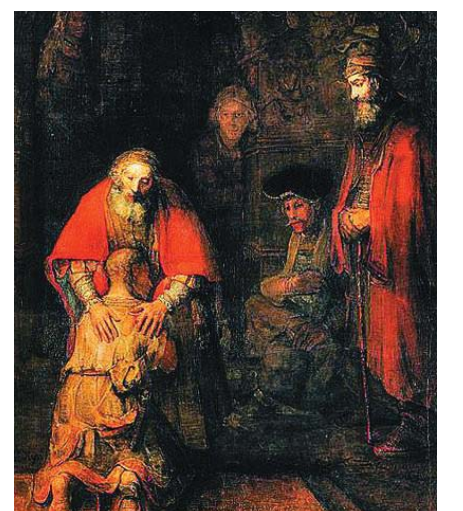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지행' 루벤스 감상 21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박물관 명화를 만나는 시간이 마련된다.

시민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매달 한차례씩 진행하는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술관들의 명화를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는 행사로 이번 43회 명화감상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 2-루벤스와 렘브란트를 중심으로'가 오는 21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시간에 감상할 작품은 루벤스의 '땅과 물의 만남', 렘브란트의 '플로라' '돌아온 방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무리요의 '소년과 개', 영국 화가 게인즈버러의 '푸른 옷을 입은 귀부인의 초상' 등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인문



렘브란트 작 '돌아온 탕자'

지행: <http://cafe.daum.net/h-arete>.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형 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내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 구분 | 연회비(VAT포함) | 비고 |
|--------|-------------|---|
| 개인(1년) | ₩ 2,800,000 | 본인 1인 |
| 증정품 | |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